[UCI]I804:24011-200000231799

2007년 2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영어 구문의 도상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양 연 진

영어 구문의 도상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conicity in English Constructions

2007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양 연 진

영어 구문의 도상성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 고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6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양 연 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00373505 2007-04-09

양연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 남 근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허 장 융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고 희 인

2006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 ii

I. 서 론 ····· 1

II. 도상성의 이론적 배경

1. 도상성의 개념 ····· 2
2. 도상성의 원리 ····· 3
   1) 양의 원리 ····· 3
   2) 거리의 원리 ····· 7
   3) 연속적 순서의 원리 ····· 11
   4) 나 먼저 원리 ····· 13

III. 영어 구문의 도상성

1. 여격교체 구문 ····· 17
2. 등위접속 구문 ····· 24
3. 보문구조 ····· 30
4. 부정문 ····· 34

IV. 결론 ····· 37

참고문헌 ····· 40

ABSTRACT

A Study on the Iconicity in English Constructions

By Yeon-jin Yang
Advisor : Prof. Ko-Hee Lee, Ph. D.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meaning and syntactic form with reference to such English constructions in terms of a theory of iconicity developed by Haiman.

Haiman(1980) distinguishes two kinds of diagrammatic iconicity: isomorphism and motivation. The former maintains that a bi-unique correspondence exists between form and meaning, while the latter holds that the structure of language directly reflects some aspects of the structure of reality. Given this dichotomy, it is possible to find several principles of iconicity such as those of quantity, distance, sequencing.

The structure of the study is as follows. Chapter 1 is just an introduction, while Chapter 2 discusses the basic concept and nature of iconicity and its principles. Chapter 3 is an attempt to check the validity of principle on other English constructions such as dative alternation sentences, coordinated sentences, complement clauses, and negative sentences. It makes it clear that

the iconicity theory is more explanatory than any other schema because it is laid on human cognitive process. Chapter 4 summarizes what has been discussed and proposed so far. Given the state of affairs, it seems necessary to pay due attention to both arbitrariness and iconicity to explicitly various syntactic phenomena.

Ⅰ. 서 론

언어 형태와 의미사이의 인지적 유사성을 일컫는 용어인 도상성(iconicity)은 한 낱말이 나타내는 의미와 그 형태사이에 직접적인 논리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그 관계는 자의적이고 우연한 결과인가 하는 문제로 언어에 대한 논의의 핵심이 되어 왔다. '해'라는 언어 기호의 소리 [해] 와 기호 /☼/의 관계는 자의적이어서, 형태를 통해서 의미를 예측 할 수 없고 의미를 통해서 형태를 예측할 수 없다는 자의성 원리가 지배적인 가운데 최근에는 언어의 도상성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도상은 '의미하는 것(signans)'과 '의미되는 것(signant)' 사이의 유사성에 기초를 둔 기호 체계로서, 예를 들면 어떤 동물과 그 동물의 그림 사이의 관계를 도상적(iconic)라고 한다. Whitman(1975)에 의하면 대부분의 문자학자들은 알파벳 문자들로 나타내는 소리의 상징(sound symbol)들이 본래는 글자보다는 오히려 그림과 같은 도상적 기호로부터 발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의문자의 경우도 물체를 직접 나타낼 때는 물론이고 어떤 물체 자체보다는 물체들 사이의 관계나 상황을 가리키는 추상적 개념을 나타낼 때에도 도상문자(iconic gram)를 사용한다. 이러한 것은 모두 정보전달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언어 도상성의 예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자연어들은 도상적 요소들이 상당부분 실제세계를 반영한다. 다시 말하면 언어가 실제세계의 지각이나 인지과정을 그대로 의사소통 체계에 반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도상성이 언어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 표현 속에 반영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영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실제세계의 상황이나 이에 대한 지각 및 인지 내용이 영어통사구조의 형태와 낱말의 선택에 어떻게 도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 밝혀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먼저 도상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이와 관련한 몇 가지 도상의 원리들은 규명하였다. 3장에서는 이 원리에 입각하여 통사구조의 도상성 중 여격교체 구문, 보문, 등위 접속 구문, 부정문을 분석하였다. 4장은 논의된 사항들에 대한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였다.

Ⅱ 도상성의 이론적 배경

1. 도상성의 개념

도상성이란 언어에서 형태(기호)와 의미(대상)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징성(symbolism)이나 자의성(arbitrariness)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자의성은 형태와 의미 사이에는 특수한 본질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는 인간이 자의적으로 정해 놓은 규약(convention)이라는 입장을 취하나, 도상성은 둘 사이에 본질적이고도 자연스러운 관계가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Peirce(1932)는 의미하는 것(signans)과 의미되는 것(signant)과의 관련방법에 따라서 그에 사용되는 기호의 종류를 도상(icon), 지표(index) 그리고 상징(symbol)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

도상은 의미하는 것과 의미되는 것 사이의 유사성에 기초를 둔 기호체계로서 예를 들면 어떤 동물과 그 동물의 그림 사이의 관계를 도상적(iconic)이라고 할 수 있다. 지표는 의미하는 것과 의미되는 것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성 또는 인접성(contiguity)에 기초를 두고 있는 관계로서, 연기와 불의 관계에서 연기는 불의 지표라고 한다. 상징은 의미하는 것과 의미되는 것 사이의 약정에 기초를 둔 관계로서 가령 "canine"을 한국어로는 "개"로 영어로는 "dog"로 나타내는 것처럼 그 관계가 자의적이다. 낱말의 경우에 같은 사물에 대하여 각 언어마다 명칭이 다르므로 낱말의 소리형태와 그 의미 관계는 자의적 또는 약정적이며 이때 형태를 상징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상징은 기호의 자의성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각을 나타내는 도형(diagram)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언어의 여러 가지 형태들은 흔히 꼭 도형처럼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의 구조를 닮았기 때문에 현재의 그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Peirce에 의하면 도형은 복합적 개념을 나타내는 복합적 기호(sign)로서 도형의 부분들과 도형이 나타내는 개념의 부분들 사이에는 어떤 일치가 있고

도형의 여러 부분들 사이의 관계가 이 도형이 나타내는 개념의 여러 부분들 사시의 관계를 닮고 있어서 이 닮음이 도형을 일종의 도상으로 즉 도형적 도상(diagrammatic icon)으로 부르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에 있어서의 동형성은 소위"one meaning, one form"의 보다 일반적인 원리인 것이다. Bolinger(1977)는 언어의 자연스런 본성은 한 의미에 한 형태, 한 형태에 한 의미를 유지하는 것이며 따라서 한 언어가 살아남도록 허락해준 낱말은 모두 그 의미상의 공헌을 해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지 및 지각과 이에 대한 언어표상 사이의 일치를 도상성으로 본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Haiman(1983)은 통사론에서 존재하는 도상성의 예들을 여러 언어로부터 예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형식상의 선형성(linearity)과 의미상의 선형성 사이의 상관관계나, 주제표지(topic marking)와 담화 화용론상의 예측성(predictability) 사이의 관계 등 도상성의 여러 측면을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 도상성의 한 측면이 거리(distance)의 도상성 - 형태상의 거리와 의미상의 거리의 상관성 -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형태적 거리라 함은 두 언어표현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로서, 이것은 도 표현 사이에 존재하는 요소들의 숫자와 내용에 의해 정해진다.

2. 도상성의 원리

본 절에서는 언어 의미가 언어 형태에 의해 동기 부여되는 도상성 원리를 합성적 언어구조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 원리는 주로 양의 원리와, 거리의 원리, 연속 순서의 원리, 그리고 나 먼저 원리등 4가지 원리가 있다.

(1) 양의 원리 (The principle of quantity)

양의 원리는 언어형태의 양과 의미의 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뜻한다. 여기서 의미의 양이란 의미의 정도(degree)와 강도(strength)도 포함한다. 즉 형태의 양이 늘어날수록 의미의 양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가장 간단한

예로써 첫째 단수형과 복수형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복수형은 단수형보다 형태 면에서 더 길다. 영어의 *car : cars, ox : oxen, tree : trees,* 한국어의 꽃 : 꽃들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복수형은 단수형보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의 양도 많아 양의 원리가 잘 드러난다.

둘째, 중복의 경우이다. 구나 문장 속에서 중복을 사용함으로 뜻이 강화 증가된 예를 살펴보면 옛날 이야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long long time ago*는 형용사 *long*을 중복 사용함으로 가까운 과거가 아닌 아주 오랜 옛날이야기란 의미가 중복된다. Lakoff & Johnson(1980: 127)은 이러한 형태와 의미 사이의 관계를 "More of form is more of content"라는 개념적 은유를 통해서 형태와 의미 사이의 도상성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것도 양의 원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예를 보자.

(1) a. He ran ran ran ran and ran.
    b. He ran.
(2) a. He is very very very tall.
    b. He is very tall.
(3) a. He is **bi-i-ig!**[1)]
    b. He is big.

(1)-(3)의 문장에서 각 (a)가 (b)보다 더 많은 양의 언어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더 많은 양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즉 각 (a)의 주어가 (b)의 주어보다 더 빨리 달리고, 키가 더 크고, 그리고 덩치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와 같이 각주2)에서도 잘 드러난다.

---

1) 이 예문에서 진하게 표시된 것은 음성적으로 세게 발음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각주3 a-f)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a. 그는 달리고 달렸다.
   b. 그는 달렸다.
   c. 그는 매우 매우 크다.
   d. 그는 매우 크다.

즉 영어나 한국어에서 보이는 모습처럼 형태의 양이 많을수록 의미의 양도 복잡해지고 많아지는 것을 위에서도 알 수 있다.

셋째, 긍정형과 부정형을 들 수 있는데 부정은 긍정보다 복잡한 개념이며 영어에서 부정형은 긍정의 형태에 부정접사가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able : disable, consistent : inconsistent, ever : never, of : nor, like : dislike, happy : unhappy, standard : substandard*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점은 아래 (4)에서처럼 문장에서도 나타나는데 부정문이 긍정문보다 길이가 길고 보다 복잡한 의미를 가진다. (5)의 한국어에서도 영어와 동일하게 부정문의 의미구조가 보다 복잡함을 볼 수 있다.

(4) a. I have money.
b. I don't have money.

(5) a. 정윤이는 축구를 좋아한다.
b. 정윤이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넷째, 상태와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각각의 어휘에서도 또한 양의 원리는 포착될 수 있다. 상태 변화는 단순히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보다 복잡한 개념이며 형태적으로 길다는 것을 (6), (7)에서 볼 수 있다.

(6) red - redden
white -whiten
long -lengthen

(7) 붉은 - 붉게 하다
긴 -길게 하다

이러한 경우는 상태의 변호는 처음의 상태와 마지막 상태 그리고 처음에서 다음 상태까지의 포함하므로 표현이 복잡하고 길어진다고 불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

e. 그는 크-다!
f. 그는 크다.

Clark & Clark(1977: 523)는 다음과 같은 복잡성 원리(complexity principle)[3]로 설명한다.

복잡성 원리는 양적인 측면에서 사고와 언어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는 표현이 복잡해질수록 그 표현이 나타내는 그 표현이 나타내는 사고도 상대적으로 더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제 또는 상의 경우에서 양의 논리를 발견할 수 있다. 시제 중 현재는 미래와 과거시제보다 체험하고 있는 기준의 시간이므로 그 개념이 인지적으로 단순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순함은 언어의 형태에도 또한 반영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8) a. do - did
go - went
b. do - will do
go - shall/will go

(9) a. drink - have drunk
kill - have killed
b. drink - had drunk
kill - had killed
c. drink - will have drunk
kill - will have killed

(8a)-(8b)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는 과거와 미래보다 형태 면에서 단순함을 보이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미래가 과거보다 더 복잡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미래의 개념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9a)-(9c)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 현재보다 현재완료, 과거완료, 미래완료 등

3) The Complexity Principle :
Complexity in thought tends to be reflected in complexity of expression.

이 차례로 형태가 복잡하고 복잡한 개념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진행상에서도 관찰이 가능하다.

양의 원리를 따르는 유표성[4]은 유무대립을 나타내는 형태적 유표성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간단하다. 즉 단수 /복수. 긍정/부정. 과거/미래. 상태/상태변화에서 각각 단수, 긍정, 과거, 그리고 상태의 경우가 무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거리의 원리 (The principle of distance)

거리의 원리는 언어 요소들이 더 가까이 있으면 둘 사이에 미치는 효과가 더 강해서 의미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개념의 근접성(proximity principle)이 형태의 근접성과 비례관계에 있으며, 심리적으로 함께 속해 있는 것은 통사적으로도 서로 가까이 위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개념적으로 함께 속하는 것들은 언어적으로 함께 놓이고 그렇지 않으면 함께 놓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다음에서 거리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도상성의 여러 모습을 살펴보자.

첫째, 거리의 원리는 영어에서 형용사의 순서를 지배하기도 한다.

Lakoff & Johnson은 아래의 예를 제시한다.

(10) a. the beautiful big old red wooden house

b. * the red wooden beautiful big old house

c. * the wooden red old big beautiful house

(10)의 명사구에서는 대상에 표제명사(head noun)에 의해서 주어진 더 본유적

4) Lyons(1976;305-11)는 유표성을 형태, 분포, 의미적 측면에서 세분하고 있다. 형태적 유표성은 표지의 유무에 의해 결정되는데, 예컨대, lion은 무표항이며 lioness는 유표항이다. 분포적 유표성은 분포의 개방성과 폐쇄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male/female)lion은 개방적이므로 무표항이며, (#male/female)lioness는 유표항이다. 의미적 유표성은 문맥 속에서 일반성과 특수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dog과 bitch의 경우, dog은 bitch의 대립어인 동시에 상위어가 되기도 하므로 무표항이고, bitch는 유표항이다.

속성들이 표제명사에 더 가까이 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wooden*은 그 집의 재료로서 그 집에 가장 본유적이어서 표제 명사에 가장 가까우며, *beautiful*은 그것이 순수하게 주관적이므로 가장 멀리 온다. 즉 *wooden - red - old - big - beautiful* 순서로 본유적이며 덜 주관적이어서 (10a) 문장이 가장 자연스럽다.

(11) a. the famous delicious italian pepperoni pizza
b. * the Italian delicious famous pizza
c. * the pepperoni Italian pizza

둘째, 양립 불가능한 형용사들의 경우이다. 이 원리에 의하면, 의미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형용사들은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

(12) a. * black white dog
b. * good bad news
c. black and white dog
d. good and bad news

(12a)에서처럼 양립 불가능한 형용사인 *black*과 *white* 그리고 *good*과 *bad*는 서로 옆에 놓일 수 없고, 따라서 (12c,d)에서처럼 접속사 *and*로 분리되어야 한다.

셋째, 부정어 이동의 경우에도 이 원리는 적용된다. Lakoff & Johnson(1980: 126-133)은 개념적 은유 "Closeness is strength of effect"의 관점에서 거리의 원리를 논의하며 아래의 예를 제시한다.

(13) a. Seohui doesn't think he'll leave until tomorrow.
b. Seohui thinks he won't leave until tomorrow.

(13a)는 (13b)보다 더 약한 부정력을 가지는데, 그 이유는 전자의 부정소 *not*은 후자의 그것보다 종속적의 동사 *leave*에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넷째, 영어의 부정어 *not*과 부정 접두사 *un*이 사용된 두 문장의 의미를 비교해 보자.

(14) a. Gamin is not happy.
b. Gamin is unhappy.

문장 (14b)에 있는 부정 접두사 *un*은 문장 (14a)에 있는 부정소 *not*보다 형용사 *happy*에 더 인접해 있다. 그래서 부정소는 문장 (14b)에서 더 큰 영향을 미쳐서, *unhappy*는 "불행한"을 의미하게 되고, *not happy*는 행복과 슬픔의 중간적인 해석을 가지게 된다.

다섯째, 사역(causative)구문의 경우이다.

(15) a. Sam killed Harry.
b. Sam made Harry die.
c. Sam caused Harry to die.

위의 예문 (15a)에는 어휘적 사역동사가 쓰였고 (15b)와 (15c)는 통사적 사역동사가가 쓰인 구문으로서 세 문장의 의미는 표면적으로는 동일하게는 사역자 Sam이 피사역자인 Harry의 죽음에 직접 관여하여 죽였음을 표현하는 직접사역인데 반해, (15b)는 사역자가 피사역자를 어떤 강압적인 힘으로 죽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케 하여 죽게 만들었음을 표현하고, (15c)는 사역자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죽음을 야기한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각 구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역의 의미가 간접적이고 독립적이지 못할수록 언어간의 거리가 멀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 모든 경우에서 언어간의 거리와 의미사이의 도상성, 즉 형태의 차이는 의미차이를 암시한다는 동기 유발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Bybee(1985a)의 동사 어간과 동사 어미 사이의 거리의 원리 문제가 거리의 원리로 설명된다. Bybee에 따르면, 여러 동사 어미들 중에서 동사 어간과 의미적으로 관련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동사 어간에 가깝게 위치한다. 즉 그는 많은 언어에서 상(aspect) 어미는 시제(tense) 어미보다 동사 어간에 더 가까우며, 시제 어간은 서법(modal) 어미보다 동사 어간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다음과 같은 일련의 예에서 예증되어있듯이, 이것은 다수의 영어 동사에서 반영된다.

(16) a. She was working at that time.
b. She worked a lot at that time.
c. She could swim when she was three.
d. * She swim-could when she was three.

Bybee(1985a: 33-35)에 따르면 많은 언어에서 상 표지가 시제 표지보다 동사 어간에 더 가까우며, 시제 표지는 서법 표시보다 동사 어간에 더 가깝다. (16a)의 상표지 -ing는 접미사로서 어휘적 동사 어간에 가장 가깝게 나타나고 시제는 선행하는 조동사 *was*에 반영되어 동사의 어간에 덜 가깝게 나타난다. (16b)에서처럼 상 표지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시제 표지는 동사와 붙어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서법조동사 *can*이 쓰인 경우에 (16c)처럼 나타나지만 (16d)가 비문이 되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서법 표지는 접미사로 바뀌어 동사어간에 가장 가까운 위치로 이동할 수 없다.

또한 Lakoff & Johnson(1980: 126-133)은 '언어적 거리는 개념의 강도를 반영한다'라는 개념적 은유의 관점에서 거리의 원리를 논의한다. 즉 여기서 '언어적 거리'는 언어의 형태에 상응하고 "개념의 강도(strength of effect)"는 언어 의미에 상응한다. 결국 개념적 은유 또한 언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영향의 강도가 강해진다는 점에서 앞서 보았던 Haiman이 말한 거리의 원리와 동일한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은 문장의 미묘한 의미차이는 영어라는 특정한 언어의 규칙의 결과가 아

니라 보편적 언어 형태에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인간의 개념체계 속에 있는 개념적 은위의 결과로 간주된다.

(3) 연속적 순서의 원리 (The principle of sequential order)

언어의 도상성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원리는 연속적 순서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언어요소들의 선형적(linear) 배열과 언급된 개념의 순서 사이의 상관관계를 지각할 수 있고 이 상관관계가 어순에 반영된다는 것이다.[5] 즉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한 사건을 기술 할 때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술한다는 것이다.[6] 다음을 보자.

(17) a. Veni, vidi, vici. (I came, I saw, I conquered)
b. Eye it, try it, buy it.

(17a), (17b)에서 세 절의 선형적 순서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적(temporal) 순서를 반영하고 있다. 만약 이 문장들의 순서를 바꾸면 그 의미는 이상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특정 시간 내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기술 할 때에도 그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순서대로 나타나게 된다.

(18) a. ancient and modern, day and night (night and day)[7]
from dawn to dusk, from morning to night

---

5) 이에 대해 Greenberg(1966: 103)는 "the order of elements in language parallels that in physical experience or the order of knowledge"라고 언급하였다.

6) 이러한 순서의 원리는 Grice(1975)의 대화 협력의 원리 중 'Be orderly'라는 양태의 격률과 일치한다.

7) day and night과 night and day는 어순이 자유롭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밤낮을 보는 방식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은 해 뜰때 부터 캄캄한 밤을 거쳐 또 다시 해뜨기 전까지를 하루로 계산하지만 유대인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창 1:5)는 말씀을 따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를 하루로 계산한다.

b. now and then, now or never, sooner or later

위의 구문 중 (18a)는 자연시간의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day and night*와 *night and day*는 어순이 자유롭다. 이것은 민족마다 시간에 대한 감각이 다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8)는 기준 시점을 근거했을 때의 어순으로 현재라는 기준 시점에 가까운 것이 앞선다. 또한 다음을 보자.

(19) a. John attended the party and drank a beer.

b. John drank a beer and attended the party.

(19)에서처럼 *and* 앞, 뒤 절의 순서를 바꾸면 이 두 문장은 각각 두 개의 동일한 사건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순서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 즉, (19a)는 *John*이 파티에 참석해서 맥주를 마셨다는 의미지만 (19b)는 *John*이 맥주를 마신 후 파티에 참석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접속사 *and* 자체는 어떤 사건의 순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단지 두 절의 시간적 배열과 그 사건들이 발생한 순서 사이에 도상성이 있음을 나타내준다.

시간적 순서의 원리는 또한 문장 층위에서도 발견된다. 따라서 다음 두 문장은 동일한 낱말을 사용하지만 형용사 *green*과 *door*가 (20a)와 (20b)에서 서로 달라서 각기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

(20) a. Bill painted the green door.

b. Bill painted the door green.

(20a)문장은 문이 원래 녹색이었으며, 어떤 다른 색으로 칠해진 것을 의미하며, (20b)문장은 문이 원래 어떤 색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칠한 결과로 문이 녹색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a)에서는 형용사 *green*이 명사 *door*를 수식하는 관계로

서 명사 앞에 위치하고 있지만, (20b)는 형용사 *green*이 명사 *door*뒤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칠을 한 결과로 발생한 문의 색깔을 도상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순서의 원리는 사물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순서가 언어표현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명사구에서 핵인 명사를 중심으로 수식하는 형용사들이 배열될 때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이다. (21), (2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명사 앞에 형용사가 둘 이상 나타나면 이들 형용사 사이에는 순서상의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1) a. a small round red plate

b. * a red small round plate

(22) a. 반짝이는 작은 별들

b. twinkling small stars

(21)에서 형용사의 순서에 있어서 사물을 인지하는 과정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plate*라는 사물을 인지할 때 그 명사의 본질적인 속성을 가장 먼저 인지하게 되는데, 이 본질적인 속성은 *red*이며 이 *red*라는 고유 속성은 *plate*와 함께 인지되며 그 모양을 나타내는 *round*는 그 다음 과정을 통하여 인지된다. 그리고 상대적인 개념인 *small*은 마지막으로 인지되는데 이처럼 어떤 대상을 지각하고 인지할 때의 순서가 형용사의 어순에 반영되는 순서의 도상성을 관찰할 수 있다.

(4) 나 먼저 원리 (The principle of me-first)

나 먼저 원리는 Ross(1967)에 의해 언급되었는데 접속된 구와 유음반복어의 구성요소들 사이의 순서는 나에 가까운 의미를 지닌 요소가 앞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리는 접속된 구성요소들 중 선행요소가 다음에 제시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23) a. up and down

b. front and back

c. here and there

d. active and passive

이런 특성들과 함께 지각범주와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연결될 때는 *up, right, vertical*의 자질을 가진 요소가 앞자리를 차지한다고 한다. 나 먼저 원리는 아래와 같은 여러 대립관계에 대해 적용되는데, 거기에는 *up-down, front-back, active-passive, here-there*의 대립관계가 존재한다. Lakoff & Johnson(1980: 132)에 의하면 각 대립관계의 첫 원소는 나먼저 원리를 결정하는 규범적(canonic) 사람을 지향한다. 개념적 지시점 으로서의 규범적 사람은 전형적으로 똑바른 자세에서 활동하고, 전방으로 보고 움직이며, 대부분의 시간을 활동을 하면서 보내고, 자기 자신을 근본적으로 선량하다고 간주한다. 더욱이, 우리는 현재 이곳에 존재하므로 우리 자신을 거기보다는 여기에, 그때 보다는 지금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원리는, 예컨대 A와 B 두 요소가 합성될 때 A와 B사이에는 어떤 고정된 순서의 도상성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기서는 이 원리가 적용되는 분야를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시간의 경우이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재라는 기준 시점에 가까운 것이 선행한다.

(24) now and then, sooner or later

둘째, 성의 경우이다. 남성과 여성이 결합할 때 그 어순은 크게 남성-여성 유형과 여성-남성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명에 있어서의 경우를 살펴보자.

(25) a. Adam and Eve, brother and sister
Jack and Jill, Romeo and Juliet

b. Venus and Adonis

c. Ladies and gentleman

(25a)에서는 남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Clark & Clark(1977: 543)에 의하면 대부분의 언어에 보편적인 일반적 경향을 남성을 여성보다 우월하게 간주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25b,c)는 여성-남성의 어순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매우 다르다. (25b)에서는 힘의 요소가 작용한다. 신인 *Venus*가 미청년인 *Adonis*보다 더 강한 존재로 생각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힘의 원리가 작용한다. 그러나 (25c)에서는 여자를 남자보다 우대하는 서양의 사회적 관습이 반영되어 있다.

사람이 아닌 경우는 동물과 무생물의 경우에는 여성이 앞선다.

(26) a. play ducks and drakes with
b. nuts and bolts

셋째, 화자의 경우이다. Ross(1967)에서 언급된 것처럼 화자를 중심으로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를 나타내는 낱말이 결합할 때의 어순은 가까운 쪽 → 먼 쪽이다.

(27) a. neither her nor there, here and there
b. at home and abroad, in and out
c. between you and me, you and I

(27a,b)는 화자에 실제로 가까운 것이 선행하는 보기이며, (27c)에서는 '*I*'가 화자이므로 분명히 앞에 와야 하는데, 이것은 남과 대화할 때 항상 남을 먼저 내세우는 공손의 관습으로 설명될 수 있다.

넷째, 방향의 경우이다. 위-아래와 가로-세로의 경우, 항상 위와 세로가 앞선다. 이것은 인간이 직립 보행하는 존재라는 신체적 특성에서 유래한다. 먼저 위-아래에 대해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를 아래보다 더 먼저 지각하고 어

떤 일을 수행하는데 시간이 덜 걸린다.

(28) a. high and low, hill and dale, move heaven and earth
stand or fall, ups and downs
b. bound hand and foot, cost arms and legs, head or tail
head over ears, head over heels, tooth and nail

(28a)의 경우는 일반적인 자연물이나 무생물의 경우이며 (28b)는 사람의 신체와연관된 표현에서도 위가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로-세로의 경우에도 영어에서는 세로가 앞선다.

(29) far and wide, the length and breadth of

좌-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오른쪽이 앞서나 어순이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고정된 것은 아니다.

(30) right and left/ left and right
right, left, and center/ left, right, and center

방위를 나타내는 경우를 보자. 영어 사용자가 북반구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어 북쪽을 위로하여 수직-수평, 오른쪽-왼쪽의 순서이다.

(31) North-South-East-West

다섯째, 크기의 경우이다. 공간감각, 인간관계, 힘 등에서 큰 쪽을 나타내는 항과 작은 쪽을 나타내는 항의 순서는 큰 항-작은 항이다.

(32) a. more or less, the long and short

b. cat and mouse, fire and water

c. young and old

(32a)의 경우는 크기가 다른 두 요소가 결합될 때의 보기를 보여주는 예가 되며 (32b)는 힘이나 위력이 더 센 쪽이 앞에 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32c)의 경우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사회적 관습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는데 어린이를 중히 여기는 서양의 관습을 알 수 있다.

Ⅲ 영어 구문의 도상성

1. 여격교체 구문 (Dative-shift constructions)

여격구문은 어순의 변화를 보이므로 어순의 도상성으로 분류될 수도 있을 것이나 V NP1 NP2와 V NP2 for/to NP1 구조 형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가 삽입되어 형태도 변한다. 또 어순의 도상성은 구조 형태가 상황을 직접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인지 과정을 반영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격 구문은 구조 형태가 직접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2장에서의 정의에 따라 구문의 도상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여 여기에서 다루기로 한다.

Erteschik-Shir(1979)는 간접목적어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담화원칙(discourse principle)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지배성의 개념(concept of dominance)[8]이다.

---

8) "지배"의 개념은 음운론적 방법으로도 적용된다. 아래의 경우 그 강조되는 단어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초점)가 상이해 질 수 있다.

a. Pass the ***salt*** to me. (i.e. not the pepper!)

b. Pass ***me*** the salt. (i.e. not Seohui!)

(33) V NP1 $\begin{pmatrix} to \\ \text{for} \\ of \end{pmatrix}$ NP2

(33)에서 NP2는 지배적인 명사구(dominant noun phrase)가 되는데, 만약 화자가 NP2 대신에 NP1에 지배성을 부여하기를 원하는 경우, 간접목적어 이동규칙이 적용됨으로써 NP2와 NP1의 위치가 전환됨으로써 NP1이 지배 명사구가 된다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34) a. Pass the salt to me, please.
b. Pass me the salt, please.

이 때 (34a)에 대한 대답으로 (35a)가, (34b)에 대한 대답으로는 (35b)가 각각 선택 된다..

(35) a. Sure. Here you are.
b. Sure. Here it is.

즉 (35a)는 이 문장이 목표로 한 청자가 식탁에서 소금그릇을 들고 있을 때, 또는 소금그릇을 들고서 어찌할까 하고 망설일 때 그리고 소금이 멀리 있어서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달라고 할 때 쓸 수 있으며 (35b)는 식탁에 있는 소금을 직접 집어달라고 할 때 쓰인다. 이 두 상황을 바꾸어서 두 문장이 쓰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지배적 정보는 담화보다는 상황에 의해서 결정됨을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Erteschik-Shir는 간접목적어 구문에서 지배성(dominance)의 원리[9]를 적용, 여격이동에 대한 제한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요지를 한 마디로 말하면 두 목적어 중에서 여격이동을 적용시킨 후 더 지배적인 명사(구)가 되는 것이 직접 목적어

9) .....V NP1 NP2 (이 구조는 ... V NP2 for/to NP1에서 나온 것임)의 구조에서 NP1은 비지배적 정보를 갖고 NP2는 지배적 정보를 갖는다.

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그는 아래의 응답을 제시하고 있다.

(36) a. Seohui gave a book to someone yesterday.

b. Oh, yes, I know who it was.

(37) a. Seohui gave someone a book yesterday.

b. * Oh, yes, I know who it was.

c. oh, yes, I know which one it was.

(36a)의 진술에 대한 응답은 *someone* 혹은 *a book* 모두 가능하지만 (37a)에 대한 대답으로는 *a book*에 대한 응답만이 가능한데 이는 여격이동이 적용된 후에는 *someone*이 지배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38) a. Seohui gave it to Gahmin.

b. * Seohui gave Gahmin it.

(38b)가 쓰이지 않는는 것은 지배적인 NP가 비지배적인 NP보다 뒤에 온다는 가설 (각주 7)을 위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배적 NP가 뒤에 온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예로서 설명한다. (∨표는 더 좋은 표현을 나타낸 것으로 이 판단은 자국어 판단자(informants)들에 의한 것이라 함)

(39) a. Seohui gave a book to Gahmin.

b. ∨ Seohui gave Gahmin a book.

(40) a. Seohui gave a book to the girl.

b. ∨ Seohui gave the girl a book.

(41) a. Seohui gave a book to her.

b. ∨ Seohui gave her a book.

(42) a. Seohui gave the book to Gahmin.

b. V Seohui gave Gahmin the book.

(43) a. Seohui gave the book to her.

b. V Seohui gave her the book.

(44) a. V Seohui gave the book to a girl.

b. Seohui gave a girl the book.

(39) - (44)을 보면 가설 각주 (7)에 따라서 비확정 명사가 확정 명사보다, 확정 명사가 대명사보다 더 지배적이며 이와 같은 위계가 여격 구문에서 이 NP들의 어순을 결정함을 알 수가 있다. (39)과 (40)에서는 비확정 명사가 확정명사, (41)에선 비확정 명사와 대명사, (42)에선 같은 확정 명사 사시에서 일반 명사와 고유명사, (43)에선 확정 명사와 대명사 사이의 지배적 정보와 관련된 위계와 이 위계에 의한 이 들 명사의 순서가 이 가설을 입증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존재한다. 여격변형을 적용시킨 구문에만 지배성의 원리를 적용시킨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예를 들어 (36)의 경우 이에 대한 대답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생각해 보면 *Who gave a book to someone?* 은 가능하나 *What did Seohui to someone?*은 적합지 못하다. 그렇다면 (36a)에서는 간접목적어가 직접목적어보다 더 지배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rteschik-Shir의 지배적 정보개념은 지배적인 명사구가 비지배적인 명사구 다음에 위치해야 한다는 사실만을 기술할 뿐 어떤 명사구가 지배적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Crider(1979)는 간접목적어의 화제성(Topicalization)[10]을 제시하고 있는데 Crider는 여격이동 변형규칙을 담화기능(discourse function)에 의해 설명하려 하였다. 즉 여격이동에 의해 도출된 V NP1 NP2 의 구문에서 NP1은 반드시 주제가(topic)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이러한 화제성의 원칙을 여격이동 규칙에 적용시켜 보면 여격이동도 기능면에 있어 일종의 주제화 현상이라는 것으로 볼 수

10) 이는 주제화된 문장의 어떤 구성소(constituent)를 문장 앞부분으로 위치시킴으로써 화제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있다.

(45) a. What did you do with the whistle?

b. I gave the whistle to Seohui.

c. * I gave Seohui the whistle.

(46) a. What did you give to Seohui?

b. I gave Seohui the whistle.

c. * I gave the whistle to Seohui.

(45)에서 *whistle*이 (a)에서 언급이 되어 주제가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하므로, 즉 *what*에 의해서 초점화된 사항의 정보를 제공해야 되므로 (b)처럼 *whistle*이 앞에 나와야 한다. 이것이 여격이동이 적용되어 (c) 문장이 되면 주제가 뒤로 가게 되어 (a)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46)에서는 *Seohui*가 주제로 설정 되었으므로 그 대답에서는 여격이동이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초점이론을 적용하여 보면, 간접 목적어가 초점을 받는 경우 문장 끝에 위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 간접 목적어의 위치 이동에 다라 단순히 구문상의 현태 변화뿐만 아니라 의미의 차이도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Erteschik-Shir(1979)도 여격이동을 시킨 구문에서 직접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보다 더 지배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Crider의 분석으로는 Ereteschik-Shir의 지배적 정보 개념으로는 잘 설명이 안되던 (47)사실이 설명된다.

(47) a. John gave the book to her.

b. John gave her the book.

Ereteschik-Shir에 의하면 대명사가 확정 명사구보다 지배적 정보의 위계에서 더 낮으므로 각주 (10)의 가설에 의하여 (47b)가 더 선호되는 문장이라고 했지만

왜 지배적 정보를 갖는 NP가 비지배적인 NP보다 뒤에 와야 하느냐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설명이 안되었다. 그러나 Crider에 의하면 *her*와 *the book* 중 담화 속에서 어느 것이 주제로 설정되느냐에 따라 (47a)나 (47b)가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자국어 판단자들은 (47)의 두 문장이 다 가능하다는 대답을 했다. 그러나 Crider의 주제나 초점도 역시 (47a)와 (47b)가 사실은 각기 다른 상황의 모습을 표상한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상의 여격구문에 대한 지배적 정보 이론과 담화의 주제에 의한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상성 이론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를 보겠다.

여격구문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통사 구조의 형태에 관한 논의였으나 여격 구문의 형태가 갖는 의미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것은 Jayseelan(1988)에서 볼 수가 있다.

Jayseelan은 이중목적어 구문을 소절(small clause)로 분석했다.

(48) John gave Mary a kiss.

(48)에서 *Mary a kiss*는 소절(small clause)로서 "NP1 have NP2"의 추상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 근거는,

(49) a. John bought a kimono for his wife.
b. John bought his wife a kimono.

(49b)에서 *John's wife has the kimono*를 함축하고 있어서 (49a)는 (50a)처럼 계속될 수 있으나 (49b)는 (50b)같이 계속하면 모순을 일으킨다.

(50) a. John bought a kimono for his wife, but finally gave it to his mistress.
b. * John bought his wife a kimono, but finally gave it to his

mistress.

여기서 소위 여격이동 규칙이 적용되었다고 보는 (49b)는 *his wife*와 *kimono*가 함께 있는 것이 되므로 이 점을 반영한 구조상에서도 이 두 NP가 인접해 있고, (49a)에서는 *kimono*를 사서 그것이 가야 할 방향만을 언급했으므로 *kimono*와 *his wife*는 함께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언어표현에 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50a)와 (50b)다. 이 도상성은 다음의 비문법성의 정도도 설명해 준다.

(51) a. ? John gave a kiss to Mary.
b. John gave Mary a kiss.

(52) a. ?? John gave a kick to the table.
b. John gave the table a kick.

(53) a. * Perfume gives a headache to me.
b. Perfume gives me a headache.

누구에게나 입맞추었다는 것은 접촉 없이는 어려운 일일 것이며, 더욱이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머리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므로 이 같은 상황을 도상적으로 나타낸 언어 표현이 (51a)-(53b)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47)의 경우 John이 직접 *Mary*에게 책을 건네 주어서 책이 *Mary*에게 있는 경우는 (47a)를 쓸 것이고, 그렇지 않고 *John*이 책을 준 행위가 *Mary*를 향했다는 상황만을 표현할 뿐이지 그 결과 책이 *Mary*와 함께 있느냐는 점에 대해선 관심이 없을 경우, 또는 책을 직접 건네 주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주었으므로 그 책이 *Mary*에게 가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거나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47a)를 쓸 것이다.

더욱이 Lakoff(1980)에 의하면 다음에서 여격명사와 동사와의 거리가 가까운 것은 그만큼 동사의 영향이 직접적이고 큰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언어의 도상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4) a. I taught Seohui German.

b. I taught German to Seohui.

(54a)의 경우 (54b)에 비해 주절동사와 여격명사인 *Seohui*간의 거리가 근접하므로 *Seohui*에 대한 주절주어인 '나'의 가르침에 대한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Seohui*와 *German*이 근접해 있음으로서 *Seohui*가 독일어를 알고 있음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54b)는 to의 삽입으로 *Seohui*와 *German, Seohui*와 *taught* 사이가 멀어지게 되므로 그만큼 *Seohui*에 대한 주절주어의 영향력도 감소되어 *Seohui*가 독일어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은 명확치 않게 된다. 즉 (54a)에서는 상호교류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그 효과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54b)에서는 *Seohui*에게 독일어를 가르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도 언어 표현에 있어 구문의 도상성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2. 등위접속 구문(Coordination Construction)

등위 접속사는 *and, but, for, or* 등이 있는데 본 논문에선 *and*로 연결된 구문만을 다루기로 한다. 등위접속사 *and*로 연결된 요소들 사이의 개념상의 거리는 접속사가 없이 나란히 놓여 있는 요소들 사이의 개념상의 거리보다 더 크다. 즉, Haiman(1985a)에 따르면 X and Y의 형태가 XY의 형태보다도 더 큰 개념적 거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55) a. one hundred and twenty-two

b. one hundred twenty-two

(55a)는 100과 22이라는 두 가지 숫자를 다 지시할 수도 있고 두 숫자의 합을 지시할 수도 있다. 반면에 (55b)는 두 숫자의 합인 122만 뜻할 수 있다. 이러한 대조

는 (56), (57)에도 적용할 수 있다.

(56) a. naive sentimental lover.

b. naive and sentimental lover.

(57) a. sweet sad song

b. sweet and sad song.

(56a)는 순진하고 동시에 감성이 풍부한 연인을, (57a)는 달콤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노래를 각각 뜻하며 (56b), (57b)는 어떤 면에서는 순진하고 때로는 감상적인 연인과 때로는 달콤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한 노래를 일컫는다. 이러한 원리로 다음 표현의 적격성 여부를 설명할 수 있다.

(58) a. * black white dog.

b. black and white dog.

(59) a. * good bad news.

b. good and bad news.

즉, (58a)와 (59a)는 각각 검으면서 동시에 흰 개, 좋으면서 동시에 나쁜 소식, 다시 말해서 한 마리의 개가 전체적으로 검고 동시에 전체적으로 흰 개는 있을 수 없고, 소식도 전체적으로 좋고 동시에 나쁜 소식은 있을 수 없다. 검은 곳도 있고 흰 곳도 있는 개나 어떤 점에선 좋기도 하고 또 어떤 점에선 나쁘기도 한 소식의 의미에서는 개념상으로 거리가 훨씬 멀다. 이러한 개념에서 언어표현 X와 Y사이의 개념상의 거리는 언어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짧다는 도상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의 예에서도 볼 수 있다.

(60) a. red and white ribbons

b. red ribbons and white ribbons

*red*와 *white*가 *and*를 중심으로 보다 가까이 나타나는 (60a)에서는 동일한 리본에 빨간색과 흰색이 나타나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60b)의 경우는 빨간색과 흰색의 리본이 각각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또 다음에서는 *both A and B*와 *A and B* 사이의 대조를 볼 수 있다.

(61) a. the President and the Secretary of State.
b. ?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President.
c. both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President.

(61a)에서는 상대적 중요성을 띤 요소가 앞선다는 점을 보이는 사회적 관습에 대한 도상성인데 이를 어긴 표현 (61b)는 어색하다. 그러나 (61c)에서 *both*를 씀으로 해서 이 도상성이 없어지고 대신 이 담화맥락 속에서는 이들의 사회적 지위 등을 반영하는 표현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이 두 사람이 관련이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란 뜻으로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순서를 어겼다는 표시가 *both*를 씀으로써 언어 표현에 나타난 것을 볼 수 가 있다.

(62) a. John Smith and Mary Smith are employees of the LG corporation.
b. John and Mary Smith are employees of the LG corporation.

Wierzbicka(1988)에 따르면 (62b)에서는 *John*과 *Mary*가 관련되어 있으며 같은 가족에 속한다는 강한 암시가 있으나, (62a)에서는 *John*과 *Mary*가 서로 떨어진 사이라는 점이 도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63) a. the ability to read and to write letters.
b. the ability to read and write letters.

Bolinger(1977)는 (63b)에서는 두 동사가 공통 목적어 letters를 공유할 가능성

이 더 있고, (63a)에서는 read의 목적어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더 일반적인 독해력을 암시 한다고 했다. (63a)는 독해력과 편지 쓰는 능력의 두 상황을 표상하므로 편지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의 한 가지 상황만을 표상하는 (63b)보다 더 길어서 표현과 상황 사이에 도상적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64) They went to London, Paris, and Rome.

(64)도 세 곳의 도시를 한꺼번에 갈 수는 없으므로 처음에는 런던, 다음에는 파리 그리고 로마로 갔다는 것을 그대로 도상적으로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방문한 순서대로 언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in alphabetical order"* 또는 *not necessarily in that order* 등의 표시를 별도로 한다. 가령 *John*은 *Seoul*을 거쳐 *Peking* 다음에 *Moscow* 등지를 방문했는데 이를 도상적으로 표현하면 *John visited Seoul, Peking, and Moscow*가 될 것이고, 이 도시를 알파벳 순서로 언급하면 *The cites John visited are Moscow, Perking, and Seoul* 로 나타내어 실제로 방문한 순서가 아니라는 개념을 *in alphabetical order*로 나타내어 표현도 그만큼 복잡해진다.

언어 표현과 표현대상 사이의 도상적 관계는 절의 등위접속에서도 볼 수 있다. 특히 and에 의해 연결되는 접속절들에 있어서는 그 절들이 나타내는 사건의 시간적인 앞뒤가 도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문장에서 앞선 절을 S1, 그 다음 절을 S2라고 할 때, S1 and S2에서 S1이 S2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을 나타낸다.

(65) a. Spike left and got up early the next day.

b. Spike got up early the next day and left.

(66) a. Peter and Susie got married and had a baby.

b. Peter and Susie had a baby and got married.

(65)와 (66)에서 (a)와 (b)의 각 등위 접속절들이 나타내는 시간상의 앞뒤관계는 실제 경험에서의 사건의 앞뒤와 일치한다. 그러나 언어 표현과 실제 사건 사이에 시간적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언어는 이점을 표시해 주는 장치를 마련한다.

(67) a. Peter and Susie got married after they had a baby.

b. Before the had their baby, Peter and Susie had got married.

(67)에서 각각 S1이 뒤에 일어난 일인데도 앞서 있다. 언어 표현에서의 순서와 그 표현이 지칭하는 경험적 사건의 순서 사이에 있어야 할 도상성이 깨졌다는 것을 (67a)에서는 종속 접속사로 (67b)에서는 접속사와 과거완료로써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더 검토하여 보면 (67)의 문장들이 (66)의 문장들의 도상성을 무턱대고 깬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영어에선 말하는 순간과 언급되는 사건 사시의 시간상의 거리가 과거와 과거완료형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접속사 *after*가 쓰인 (67a)에서는 두 접속절(conjucts)이 다 단순 과거형인데, *before*가 쓰인 (67b)에선 주절이 과거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이를 도상성으로서 설명하기 위하여 (67a)도 before를 써서 과거완료형이 나타나도록 고치면 다음과 같이 된다.

(67) c. Before Peter and Susie got married, they had had a baby.

결국 (67a)와 (67c)는 실제 사건의 시간상 순서가 같은 것인데도 형태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각 접속절들의 이 둘을 사건의 순서대로 도형으로 나타내보자.

(67a) : ——————————|——————————▶ 시간흐름의 방향

after S2 S1 말하는 때

(67c) : ——————————|——————————▶ 시간흐름의 방향

S2 before S1 말하는 때

즉 말하는 순간에서 (67b)의 경우 (도형에서는 67c)는 S2와 S1사이에 *before*가 끼어 있어서 S2가 말하는 때로부터 (67a)에서보다 더 멀다. 이 사실을 도상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언어 표현상의 거리도 *had*가 있어서 더 큰 과거완료형이 쓰인 것이다. 다음에서도 (68a)에서는 S1이 S2보다 시간상 먼저다. 그러나 (68b)에서는 동시에 일어난 것을 보인다.

(68) a. Max hit Harry and Harry hit Max.

b. Max and Harry hit each other.

즉, (68a)에서는 별개의 사건들이 (68b)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융합(fusion)되어 이점이 도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종래의 변형문법에서 등위접속 삭감(coordinate reduction)이란 변형에 의하여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다음의 문장도 S1과 S2가 개별사건이냐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 한 사건이냐를 구별하기 위한 도상적 장치임을 알 수가 있다.

(69) a. We can do it quickly, and we can do it well.

b. We can do it quickly and we can do it well.

(69b)는 *quickly*와 *well*이 표상하는 속성들이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사실을 이 두 속성들을 한 절(clasue) 안에 놓음으로써 도상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반면에 (69a)는 이 속성들이 각기 다른 경우에 실현되고 또 실제로는 서로 배타적이라는 추리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한다. 즉 (69b)는 빨리 그리고 동시에 잘 할수 있다는 것이고, (69a)는 빨리 할 수도 있고 서둘지 않아도 된다면 그때는 잘 할 수도 있다는 것을 *quickly*와 *well*을 떼어 놓음으로써 도상적으로 표현했다. 즉 이 두 속성들이 각기 동떨어진 사건에서 실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인-결과도 원인이 먼저 있음으로 다음에 결과가 오는 순서를 *and*에 의하여 도상적으로 나타냈다.

(70) He heard an explosion and he (therefore) phoned the police.

(70)에선 S1이 S2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시간상으로도 원인이 자연히 먼저가 되므로 S1이 앞서있다. 이상 and는 이러한 도상성을 표현하는 한 장치로 볼 수가 있다.

3. 보문구조 (Complement Construction)

영어의 보문구조는 어떤 보문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 ~ing, to--, 그리고 that절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보문 선택이 도상성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고 나타나는 보문의 의미해석에도 이러한 도상성이 반영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Bonlinger(1977)의 형태와 의미의 일대일의 대응이나 Clark & Clark(1977)의 생각의 복잡성은 표현의 복잡성에 반영된다는 복잡성원리나 Haiman(1983)의 개념상의 거리가 먼 것은 언어에서도 멀게 표현된다는 것은 모두 언어의 도상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Haiman(1983)의 언어표현 거리의 척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문소에 적용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71) a. X # A # Y : 보문소의 형태 that
b. X # Y to
c. X + Y -ing
d. Z ∅ (#: 낱말경계, +: 형태소 경계)

(71)에서 언어적 거리는 밑으로 갈수록 짧아지고 위로 갈수록 길어진다. 즉 보문소가 ∅로 나타난 (71d)에서는 주절의 목적어와 보문의 동사 사이에 형태소조차도 삽입되지 않으므로 언어표현상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 (71c)의 -ing의 경우는 주절의 목적어와 보문의 동사 사시에 -ing의 형태소만큼 그 언어적 거리가 멀어지고 (71b)에서의 to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낱말 to만큼 거리가 떨어지

게 된다. (71a)의 that의 경우는 that이 삽입됨으로 새로운 절이 연결되어 가장 언어적 거리가 멀어진다고 볼 수 있다.

먼저 Ø보문소가 들어간 보문구조를 보면 사역동사가 갖는 보문구조와 지각동사가 갖는 보문구조가 있다. 여기선 지각동사의 경우만을 논의하기로 한다.

지각(perception)은 어떤 자극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응개념은 인지(cognition)로서 그 자극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결정해 주는 것인데(Hass, 1968) 이들을 나타내는 동사가 각각 지각동사와 인지동사이다. 지각동사[11]는 그러므로 감각대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나타내는 동사이며 인지동사[12]는 어떤 사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나타내는 동사다.

우리는 어떤 것을 지각할 대 감각기관을 통해야 하므로 지각대상을 직접 눈이나 귀로 보거나 듣는다. 즉,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대상을 직접 보거나들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지각동사에서는 주절 주어의 시간과 공간상의 위치와 일치해야 즉 함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지각은 지각자와 지각대상사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있다. 그러나 인지의 경우는 인지의 주체와 인지대상이 직접 시간·공간상으로 접해 있을 필요가 없이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인지가 가능하다. 이 같은 사실이 언어표현에서 지각동사의 경우는 보문의 동사에 Ø보문소가, 인지동사의 경우 보문동사 앞에 보문소 to가 쓰여 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72) a. I saw it happen.

b. I know you to be a kind person.

(72)의 경우 그것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본 것이므로 보문소가 Ø로 주절의 목적어와 보문동사가 직접 인접해 있으며 (72b)에서는 주절 주어 I가 보문의 주어인 청자 you의 친절한 행위를 몇 번이고 보고서 비로서 친절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이 you가 친절하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미루어서 또는 다른 사람의 평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각은 직접적이지만 인지는 직접

11) 지각동사의 예: see, hear, look, observe, receive, watch, view 등
12) 인지동사의 예: know, believe, prove, think, understand 등

절일 필요가 없으며 이점이 보문소 ∅과 to의 차이로 언어표현에 도상적으로 나타나 있다.

(73) a. She seems (to be) worried.
b. She appears (to be) worried.
c. She look (* to be) worried.

(73a, b)에서는 *she*의 모습을 직접 화자가 지각한 것으로 볼 때는 *to be*가 필요없고, 반면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하여 판단할 때는 간접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므로 to be가 쓰인다. 그러므로 (73c)에선 *she*의 표정을 눈으로 직접 본 것이므로 *to be*가 쓰일 수 없다.

현재 분사형의 경우는 보문의 주어와의 거리는 ∅보문소와 마찬가지이나 다만 보문동사에 -ing 보문소가 첨가되어 표현이 ∅ 보문소보다 더 복잡해진 것뿐이다.

이러한 상황의 차이에 따른 보문형태의 차이에 대해 Thompson(1987)은 "시간상의 제한(bounded in time)"과 "시간상의 비제한(unbounded in time)"의 개념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 세계의 사건은 시작, 중간 및 끝이라는 과정을 지니므로 거기에는 시간적 제한이 존재하게 되는데, 원형부정사를 사용하는 경우 이 시간적 제한을 중요시 하여 사건의 시작과 끝 전체에 관심을 주려는 것이고 -ing형태를 사용할 때는 메시지와 시간적 제한과는 별 관계가 없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라고 한다.

(74) a. I saw the dog running across the field. [13]
b. I saw the dong run across the field.

(74)에서 만약 그 개가 현재 뛰고 있는 상태만을 목격했을 뿐 들판을 가로질러

13) Rosenbaum(1976: 28)은 일반적으로 보문소는 보문에 대한 의미론적 해석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4a)와 (4b)간에 존재하는 의미 차이를 설명하는 일은 어려우나, 다만 -ing를 진행의 "-ing"로 간주한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뛰는 행위를 완전히 끝마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74a)를, 그 개가 들판을 가로질러 뛰고 있는 행위를 종료한 것을 보았고 그 종료된 행위(complete action)에 대한 화자의 관찰을 제 3자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는 (74b)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75) a. * Jane felt to be justified.

b. Jane felt that she was justified.

(75)의 본동사는 인지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문의 내용이 어떤 속성 혹은 상태임을 인지했음을 나타내준다. 이 상태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지 직접 보문이 나타내는 상태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간격을 보문소 *that*에 의하여 도상적으로 표현한 것이 (75b)이다. 그러나 다음에서는 주절의 주어가 직접 보문의 행위를 하거나 그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을 주절의 동사가 나타내므로 *that* 절은 쓸 수 가 없다.

(76) a. Jane neglected to be careful.

b. * Jane neglected that she was careful.

또 다음에서도 *that*절이 간접적인 상황을 나타냄을 쉽게 볼 수가 있다.

(77) a. Jane knows her to be intelligent.

b. Jane knows that she is intelligent.

(78) a. We felt the plan to be unwise.

b. We felt that the plan was unwise.

(77a)는 주절 주어가 직접 체험에 의하여 (여러번 그녀가 똑똑하다는 것을 경험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그녀가 실제로 똑똑하다는 것을 함의하지는 않고 (77b)는 그녀가 실제로 머리가 좋다는 것을 *Jane*자신이 직접 부딪쳐서 알아 낸 판단이 아니고 외부의 자료에 의하여 평가된 것을 표현한 것이다. (78)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Borkin(1973: 46)은 개인의 경험이 보문소 선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79) a. I find that this chair is uncomfortable.
b. I find this chair to be uncomfortable.
c. I find this chair uncomfortable.

(14)를 도상적으로 분석해보면 (14a)는 보문소 that이 삽입됨으로써 주절의 주어 I와 보문의 주어 this chair의 특성인 uncomfortable사이의 언어적 거리가 가장 멀리 나타나고 의미적으로는 의자에 대해 언급할 때 소비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나 의견서 따위의 통계 결과 등에 근거해 말하는 경우이다. (14b)는 설문조사 내용이나 의견서 등의 서류를 검토한 후 자신의 의견을 언급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14c)는 어떤 외부적인 의견이나 결과에 의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의자에 대해 평가한 후 불편하다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한다. 이런 사실이 각기 다른 보문소를 선택하여 도상적으로 표현된 것이 (14)이다.

4. 부정문 (Negative Construction)

이 논문에서는 영어의 부정문중 종속절에서 부정어가 인상(raising)된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사이의 의미차이를 도상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을 보자.

(80) a. Mary doesn't think he'll leave until tomorrow.
b. Mary thinks he won't leave until tomorrow.

(80)의 두 문장의 의미는 유사하지만 전체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즉 (80a) 는 (80b)보다 약한 부정적인 힘(negative force)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데 즉 부정표시 *not*이 동사 *leave*로부터 (80b)보다 (80a)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고 (1a)의 *not*은 leave보다는 논리적으로 *think*를 부정한다. 여기에는 또한 거리의 도상성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거리의 도상성은 *not*의 부정범위를 보다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81) a. Harry is unhappy.
b. Harry is not happy.

(81a)에서 부정접두사 *un-*은 형용사 *happy*와 결합하여 한 단어를 형성하기 때문에 (81b)에서의 부정어 *not*보다 *happy*에 대한 거리나 밀접의 강도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81a)가 (81b)보다 부정의 힘이 더 크고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unhappy*는 *sad*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반면에 (81b)의 *not happy*는 *happy* 와 *sad*에 둘 다 해당되지 않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진다. 부정접사가 사용되었을 때와 부정어가 사용되었을 대의 의미차이는 이런 식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 다음에서도 이 점은 적용될 수 있다.

(82) a. I think she's sad.
b. I think she's unhappy.
c. I think she's not happy.
d. I think she isn't happy.
e. I doubt she's happy.
f. I do not think she's happy.
g. I don't think she' happy.

(a-g)의 문장들은 의미상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화자가 어떤 여자가 행복한지 어떤지에 대하여 가지는 확신의 정도에 있어서는 동일하지 아니하다. Givon(1990)은 이들 문장에서 서술어인 HAPPY라는 의미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negative) 확신의 정도는 (a)가 가장 강하고, 밑으로 내려갈 수 록 점차 그 강도가 약화되어, (g)에서는 부정의 힘(negative force)이 가장 약하다고 주장한다. 바꾸어 말하여, 의미상의 거리를 부정의 힘의 정도라는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a-g)에서 의미상의 거리는 (a)가 가장 짧고, 그 거리가 점차 길어져서 (g)에서 가장 길다고 말할 수 있다.

Ⅳ.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언어의 형태와 의미사이에 존재하는 도상성을 구명하고 이 도상성 이론이 실제 영어 구문의 보다 명시적인 의미 분석에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상성 이론의 본질과 그 원리들을 고찰하고 이러한 도상성의 원리들 중 먼저 양의 원리를 살펴보았다.

(83) a. He is very very very tall.
b. He is very tall.

(83)문장에서 (a)가 (b)보다 더 많은 양의 언어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이 많을 수록 의미의 양도 복잡해지고 많아지는 것을 위에서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거리의 원리를 살펴보았다.

(84) a. Gamin is not happy.
b. Gamin is unhappy.

문장(84)에서 (b)에 있는 부정 접두사 *un*은 문장 (b)에 있는 부정소 *not*보다 형용사 *happy*에 더 인접해 있어서 부정소는 문장 b에 더 큰 영향을 미쳐 *unhappy*는 "불행한"을 의미하게 되고, *not happy*는 행복과 슬픔의 중간적인 해석을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연속적 순서의 원리를 살펴보았다.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한 사건을 기술 할 때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술한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85) now and then, now or never, sooner or later

(85)문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재라는 기준 시점에 가까운 것이 선행한다는 나 먼저 원리 또한 설명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먼저 여격이동 구문에 있어서 도상성을 살펴보았다.

(86) a. I taught Seohui German.

b. I taught German to Seohui.

(86) 문장에서 여격명사와 동사와의 거리가 가까운 것은 그만큼 동사의 영향이 직접적이고 큰 것을 나타낸다. (a)의 경우 (b)에 비해 주절 동사와 여격명사인 *Seohui*간의 거리가 근접하므로 상호교류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그 효과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반면 (b)는 *to*의 삽입으로 *Seohui*와 *German*, *Seohui*와 *taught* 사이가 멀어지게 되므로 *Seohui*에게 불어를 가르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 다음은 등위 접속구문을 살펴보았다.

(87) a. one hundred and twenty-two

b. one hundred twenty-two

등위접속사 *and*로 연결된 요소들 사이의 개념상의 거리는 접속사가 없이 나란히 놓여 있는 요소들 사이의 개념상의 거리보다 더 크다. (a)는 100과 22이라는 두 가지 숫자를 다 지시할 수도 있고 두 숫자의 합을 지시할 수도 있다. 반면에 (b)는 두 숫자의 합인 122만 뜻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문구조에서 나타나는 도상성을 살펴보았다.

(88) a. I find that this chair is uncomfortable.

b. I find this chair to be uncomfortable.

c. I find this chair uncomfortable.

Borkin은 a에서는 주절주어 의견이 보문의 내용에 들어 있지 않고 서류의 내용만 전달할 뿐이고, b는 주절주어의 판단은 들어 있으나 그의 직접적인 판단이 아니고 소비자들의 반응에 의한 것이며, b는 주절주어의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부정문에서 나타나는 도상성을 살펴보았다.

(89) a. I think she's sad.
b. I think she's unhappy.
c. I think she's not happy.
d. I think she isn't happy.
e. I doubt she's happy.
f. I do not think she's happy.
g. I don't think she' happy.

이들 문장에서 서술어인 HAPPY라는 의미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확신의 정도는 (a)가 가장 강하고, 밑으로 내려갈 수 록 점차 그 강도가 약화되어, (g)에서는 부정의 힘이 가장 약하다. 즉 의미상의 거리를 부정의 힘의 정도라는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의미상의 거리는 (a) → (g)로 갈수록 가장 길다고 말 할 수 있다.

이상 통사구조에 나타나는 도상성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구조에서 나타나는 도상성은 결국형태의 차이에 따른 미묘한 의미차이를 설명할 수 있고 나아가 화자가 문장을 발화할 때에도 인지적으로 용이한 경우를 하나의 도상적 지표를 통해서 선택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인간의 언어에는 단일어적인 측면에서의 자의성뿐만 아니라 여러 층위로 확대될 때 도상성도 분명히 함께 존재한다. 그러므로 교실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이러한 언어현상을 설명하면 보다 쉽게 학생들이 영어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광현, 황규홍 (2001). An Iconicity-theoretic Approach to the English Dative Alternation Construction : Vol. 43 No. 2: 547-564 「새한영어영문학」

문병태 (1989). A Study on Iconicity in English Syntax : Vol. 5 No. - : 33-76 「영미어문학연구」

임상순 (1989). A Study on the Iconicity of Syntactic Structures in English : Vol. 23 No. -: 17-45

Aderson, E. (1998). *A Grammar of Iconism London*: Associated University Press

Baker, Carl L. (1978). *Introduction to Generative Tramsformational Syntax*.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Bates, E. (1976). *Language and Context: the Acquisition of Pragmatic*. New York: Academic Press.

Bolinger, D. (1974). *Meaning and Form*. London: Longman.

Bolinger, D. (1977). *The Form of Language*. London: Longman.

Borkin, A. (1973). : "To be and not to be," *CLS* 9: 44-56

Bybee, J. (1985a). *"Deagrammatic Iconicity in Stem-inflection Relations," in Iconicity in Syntax*, ed. by John Haiman, 11-47. Amsterdam: John Benjamins.

Bybee, J. (1985b). Mo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 John Benjamins.

Chomsky, Noam (1958). "A Transformational Approach to Syntax", in *The Structure of Language*, (eds.) Fodor and Katz.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_____(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_____(1970). "Remarks on Nominalization", in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eds.) Jacobs and Rosenbaun. Boston, Mass. : Ginn and Co. .

Clark, H. and E. Clark. (1977). *Psychology and Language*. New York: Hartcourt.

Crider. C.A (1979). *On the Explanation of Transformations*. Syntax and Semantics 12.

Erteschik-Shir. N. (1979). *Discours contains on datvie movement*. Syntax and Semantics 12.

Givon, T. (1990).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Vol. 2. Amsterdam: John Benjamins.

Goldberg, A. (1995). *Constructions: An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reenberg, J. (1966). *Universals of Language*.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cole, P. & J.L. Morgan. eds. 41-58.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Londeon: Academic Press.

Haiman, J. (1980). "The Iconicity of Grammar: Isomorphism and Motivation," *Language* 56: 515-540

Haiman, J. (1983). "Iconic and Economic Motivation," *Language* 59: 781-891

Haiman, J. (1985a). *Iconicity in Syntax*.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6. Amsterdam: John Benjamins

Haiman, J. (1985b). *Natural Syntax-Iconicity and Ero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ckendoff, R. (1990). *Semantic Structures*. Cambridge, MA: The MIT Press

Jakobson, R. (1965). "Quest for the Essence of Language", *Diogenesb* 51: 21-37

Jayseelan, K. A. (1988). *Complex predicates and Ø-theory*. Syntax and Semantics 21.

Kiparsky, P. and C. Kiparsky (1970), "Fact", in *Syntactic Argumentation*, (eds.) Napoli and Rando. Georgetown University Press.

Lakoff, G. And M.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yons, John. (1976). *Semantics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Peirce, C. S. (1932). *Collected Papers* Vol. 1-7.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Pinker, S. (1989). *Learnability and Cognition: The Acquisition of Argument Sturcture*. Cambride, Mass: The MIT Press.

Rosenbaum. Peter S. (1967). *The grammar of English Predicate Complement Construction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Ross, J. R. (1967).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MIT.

Thompson, S. and Y. Koide. (1987). "Iconicity and Indirect objects in English," *Journal of Pragmatics* 11: 399-406

Whitman, Randal L. (1975). *English and English Linguisctic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Wierzbika, A. (1988). *The Semantics of Grammar*. Amsterdam: John Benjamins.